

C.E.O Message

5월이면 생각나는 사람

"단 한시도 그녀가 놓지 않았던 캐럿의 비전과 희망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어
언제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지탱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년쯤 되었을 것이다. 봄이 완연한 5월 어느 날,
그냥 보아도 150cm가 갓 넘어 보이는 자그만 체구에 반짝이는 눈빛을 한 당돌한 여성 한 명이 캐럿의 문을 두드렸다.
채 2년이 되지 않은 신생 회사였기 때문에 근무환경과 처우가 좋지 않았지만 본인에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싶었다.
당근에서 일하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년간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당근을 위해 일했고, 무서운 것이 없었으며, 경영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들로 사업을 만들어 나가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복잡한 경영이론이나
마케팅 법칙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와 고객에게 항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며, 무엇을 위해 일하는
지를 잘 알고 있었고, 항상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때로 그녀는 나에게 Challenge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리고 책 지식에 갇혀있는 나에게 현실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생존하는 법
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그렇게 3년을 30년처럼 눈부시게 살았고 남편과 아들을 뒤로한 채 젊은 생을 마쳤다.

오늘의 캐럿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지만, Judy의 열정과 헌신은 오늘날 CK의 정신이 되어 우리 모두의 호
흡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단 한시도 그녀가 놓지 않았던 캐럿의 비전과 희망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어 언제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우리는 그녀의 "실행정신"을 기리기 위해 Judy's day를 지정하고 해마다 5월이면
캐럿에서 그녀의 삶과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캐럿은 위대한 기업의 필요조건인 훌륭한 역사성과 강한 문화를 겸비해 나가고 있다.
21세기 최고의 지식기반 부가가치 창출기업이 되기 위해서 CK 구성원들의 성장과 조직몰입을 통한 헌신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

"Just Do It !!!"

Written by 대표이사 노상충 (James Roh)

